

제 9 회 씨어터 올림픽스

정보전달 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정비됨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자국 이외의 문화까지도 가까이 느끼고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현장에서 경험하며 인간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순간의 지혜를 쌓아 온 시대와 비교하면, 그 현장에 마주할 일이 없어도 매사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환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인류는 비 동물성 에너지(석유, 전기, 원자력)의 힘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어 인류의 미래가 공존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인간을 이어주는 비 동물성 에너지의 힘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개인과 개인의 신체 안에 있는 동물성 에너지가 가진 풍부한 가능성을 잊게끔 하거나 쇠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화는 이 동물성 에너지를 정제하여 사용함으로써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무대예술, 연극이나 무용, 오페라 등은 영화나 방송과 다르게, 그야말로 이 동물성 에너지를 훌륭하게 사용함으로써 인류의 재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예술이나 스포츠는 그것이 행해지는 그 현장에 함께 하며 인간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 동물성 에너지를 구사한 정보전달 시스템이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만큼 확대된다 할지라도, 무대예술이나 스포츠가 가지는 가치관을 잊어 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물론 동물성 에너지를 단련하고 정제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모두 함께 즐기는 방법들은 민족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각각의 민족과 지역들은 그 즐거움의 방식의 차이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개성과 존재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 동물성 에너지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생활의 양상들이 확일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야말로 무대 예술과 같은 문화적 사업을 통해 민족과 지역의 공통성과 차이를 함께 알아 가는 것이 인류의 미래로의 공존을 위한 큰 공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대 예술이 힘 있게 존재한다는 것은, 21 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이라고, 저희 씨어터 올림픽스 국제 위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술감독 스키 타다시

개최 개요

제 9 회 씨어터 올림픽스

일본/러시아 공동 개최

테마 Creating Bridges

일본 개최 2019년 8월 23일(금) - 9월 23일(월)

예술감독 스즈키 타다시

공연장 토가 도야마현 토가예술공원

쿠로베 우나즈키 국제회관 「셀레네」

마에자와 가든 야외 스테이지(YKK)

러시아 개최 2019년 6월 15일(토) - 12월 15일(일)

예술감독 발레리 포킨

공연장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알렉산드린스키 극장 외 다수

상연 작품

씨어터 올림픽스 국제위원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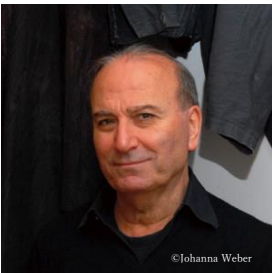
『리어왕』, 『사드 후작 부인』, 『세상의 끝에서 보내는 인사』,
『디오니소스』

제 9 회 씨어터 올림픽스 예술감독 (일본 개최)
스즈키 타다시 (일본)



『Today. 2016-...』

제 9 회 씨어터 올림픽스 예술감독 (러시아 개최)
발레리 포킨 (러시아)



『트로이의 여인들』

씨어터 올림픽스 국제위원회 위원장
테오도로스 테르조폴로스 (그리스)



『Lecture on Nothing』

로버트 윌슨 (미국)

『맥베스』
라탄 티얌 (인도)

『하늘과 땅 사이의 생』
리우 리빈 (중국)

『이름없는 꽃은 바람에 지고』
최치림 (한국)

『Anhelli. The Howl』
야로슬로우 플렛 (폴란드)

씨어터 올림픽스 초청작

『라디오 맥베스』

앤 보거트 연출 (미국)

『맥베스』

알레산드로 세라 연출 (이탈리아)

『파랑새』

마티아 세바스티안 연출 (이탈리아)

『The Journey of Life』

래스즈 I. 쿠스마닝그룹 구성 (인도네시아)

『All is Night Now』

파코 데 라 자란다 연출 (스페인)

『New Paradise of Silent Island』

호 샤오 메이 안무 (대만)

『란룽왕』

왕 샤오잉 연출 (중국)

『고도를 기다리며』

샤이카 테칸드 연출 (터키)

『Removing』

노에 수리에 안무 (프랑스)

『아마릴로』

호르헤 A. 바르가스 연출 (멕시코)

『정화』

오스카라스 코르스노바 연출 (리투아니아)

『The Twelve』

안톤 오코네쉬니코프 연출 (러시아)

『호메이』

알라쉬 앙상블 연주 (러시아)

『아제아제』

SAMGHA /진언성명회 출연

타카다 미도리 음악 (일본)

『천수 이야기』

미야기 사토시 연출 (일본)

『도쿄 노트 - 인터내셔널 버전.』

히라타 오리자 작 · 연출 (일본)

『검을 버리다』

나카시마 마코토 연출 (일본)

『still / speed / silence』

가나모리 죠 연출 · 안무

하라다 케이코 음악 (일본)

『수업』

시가 아키히미 연출 (일본)

※상연 프로그램 외에 관객과의 대화, 심포지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상연 프로그램 : <https://www.theatre-oly.org/en/program/>

티켓 안내 : <https://www.theatre-oly.org/en/ticket/>

숙박 · 교통 · 식사 안내 : <https://www.theatre-oly.org/en/spot/>